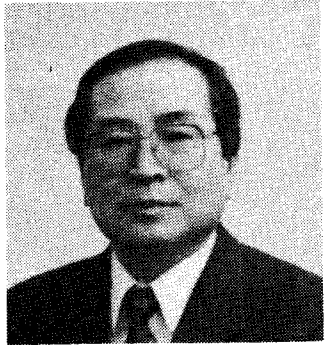


주간교수의 변



이 석 우 교수
<윤리대·사학과>

그러나 기쁨이 큰 만큼이나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의 지남함과, 그것이 지느러는 중압감 때문에 빠져들수 밖에 없는 좌절의 심연 또한 크다는 것을 결코 숨기고 싶지 않다.

그같은 좌절은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와 대학의 현실, 그리고 문화적변이와 같은 여러요인들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무엇보다 시대는 우리의 의식을 앞질러 변하고 있다. 가치관, 생활양식과 규범, 인간과 사제관계, 윤리도덕, 대학관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이들은 우리시대의 모든것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어쩌면 보다 근원적인 좌절은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데 대한 무력감에서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회의를 넘어 좌절감까지 느끼고 있다.

1.

학생기자들이 편집권을 지켜 대학신문들은 독자적 정론을 펴고자하는 정열은 실로 뜨겁다. 아마 이것은 대학신문이 결코 놓칠수 없는 전통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안타까운것은 독자적 편집권의 행사와 신문 질의 고양이라는 문제가 항상 합일되는것만은 아니라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 우리는 지혜를 모아 협력의 차원에서 이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

신문에 대한 요구는 더욱 다양 다변화 하고 있다. 이시대에는 "개별화"의 시대라고 한다. 통합과 획일화가 진행되는가 했더니, 그보다 더 강하게 분화와 개별화가

문자 자기편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었으면 하는 강한 기대를 가질수 있다. 동문들 또한 주권이 없을수 없다. 왜신문이 운동권논리(?)만 대변하고 학교의 발전이나 획기적인 체육성과 같은 것은 소홀히 하고나고 질타한다. 솔직히 신문의 대외적인 비판강도에 신경을 쓰지 않을수 없는것이 주간교수의 또다른 처지이기도 하다.

그같은 귀에 따가운 비판의 소리를 들으면서 신문제작에 밤을 세우는 우리 기자들의 모습을 본다. 그들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수업은 말할것도 없고 건강까지 해치면서 신문에 모든것을 쏟아 붓는다. 그러한 그들을 대 할때 나무라다가도 오히려 깊은 연민과 일말의 동지적식이 생기는것은 부인할수 없다.

왜 교수들의 글이 이렇게 부족

한다.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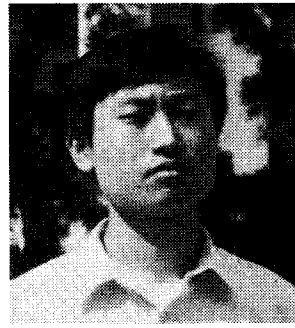
2000년대를 바라보며 1000호의 문턱을 우리도 이렇게 긴장하며 넘어섰다. 우리의 고민 우리의 좌절은 그것이 보다 큰 소망과 보람으로 결실될때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오늘의 변화는 미래에 대한 변화를 설정할 때 가능하다. 앞으로 2000호는 어떻게 변해 있을지, 종이는 사라지고 전자신문만 남을까? 2000호를 바라 보며 내 나름의 몇가지 바람이 있을 수 없다.

무엇보다 시대의 변화를 뒤따라가는 신문이 아니라 선도해 가야겠다. 과거의 타성이나 이념에 안착하는 안일한 자세는 금물이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논리가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 대학신문이 지나치게 사회경제, 구조적인 면에만 경사되어 가치 이념적인 면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또한 신문이 당면의 문제들을 사회구조적 측면만이 아닌 개인적 개별성의 측면에서도 접근 해야겠다. 사회구조적인 측면만 다루면 모든 잘못과 모순은 사회에만 책임이 있고 개인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 그러나 개인과 사회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때는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겠다. 제도와 구조만이 아닌 인간의 제문제도 솔직히 논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점에서 대학신문이 토론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언론(言路)을 터어놓아, 모든 학문영역의 교양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당위가 있다.

대학신문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에 감사한다. 그러나 그만큼이나 애정 어린 이해와 참여 또한 절실함을 상기시키고 싶다.

편집장의 변



이 지 환
<본보 편집장>

대학주보 편집실 그곳은 대학주보의 삶과 투쟁의 장소이며 선배기자들의 손때가 구석구석에 끼여있는 바로 그곳이다. 길잃은 양치기 떼를 돌아다니는 결과 편집실로 들어오는 기자에게 편집실은 따스한 어머니의 품일 것이다. 그리고 마감 시간에 쫓기는 기자들의 가슴속에서 편집실은 아수라 지옥보다 더욱 무시무시한 곳이라.

그러한 편집실의 한쪽은 액자가 하나 걸려있다. 낡고 오래된 액자속에는 기자들 모두가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할 문구가 적혀있다.

노신의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문구이다. 여기에서 노신은 이렇게 적고 있다. 첫째, 온갖 형태의 현상에 주위를 기울여라. 세심하게 관찰하라. 단지 한낱 힐끗 보고 곧바로 쓰지 말라.

둘째, 글을 쓸수 없을때 글쓰는데 집착하지 말라. 조사나 연구없이 펜을 들고 글쓰는데 집착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셋째, 글을 마친후 적어도 원고를 두번을 읽어보라. 불필요한 단어 문장단락을 삭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 작품의 제재를 압축하여 대강의 윤곽을 그려라.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늘어서 작품으로 만들어라.

넷째, 다른 모든 사람이 이해할수 없고 자신만이 아는 형용사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지마라.

이 글은 기자들에게 그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점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점 그리고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대학신문의 주체는 학생이다

둘째 대목에서는 무책임한 글을 경계하라고 하였다. 글이라는 것이 결코 모순과 거짓의 덩어리가 아닐진데 어떻게 아무런 책임없는 말을 할 수 있는지는 것이다.

셋째 대목에 와서는 글의 탈고에 심혈을 기울여야하며 마지막에는 자신만이 아는 형용사들을 인위적으로 쓰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글쓰기의 아집에 대한 또 하나의 경계인 것이다.

그리고 이글의 제목은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적혀있다. 네가지 문구를 모두 이 한마디에 요약해 담을 수 있다. 결코 어떻게 쓸 것인가하는 고민을 하지 않고선 그 누구도 글을 쓸수 없다. 그러나 진정한 고민이 최소한 이정도는 되어야한다는 것을 노신은 적고 있는 것이다.

대학주보의 기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니 신문에 게재할 기사라면 아마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수천 수만번 고민해왔을 것이며, 지금의 현역 기자들 역시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주보의 개개인은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명제와 더불어 대학주보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사명을 갖추어왔다.

4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전통이 어찌 책상하나 의자하나가 지금 이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개여진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조차 선배들이 남긴 전통과 대학주보의 역사로 실체함을 온몸으로 느껴왔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대학주보의 모든 것을 사랑하였다. 기자간의 사랑과 선배배간의 끈끈한 정은 기자들이 대학주보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느낀 것이리라.

이제 대학주보는 과거 40년의 힘을 안고 한계기 앞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학신문이 할수 있는 정론직필의 필봉을 높이들고, 신문의 주체로 확고한 입지를 다져야 할 것이다.

진정 '대학'의 신문이 되자



◇ 대학신문의 위기와 그 타계책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신문이 최근에 와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 대학신문과 직접관련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인 것 같다. 물론 학생을 대변하고 있는 학생기자들이 보는 대학신문의 위기와 대학당국 및 교수들이 보는 대학신문의 위기는 그 근본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오늘의 대학신문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같은 견해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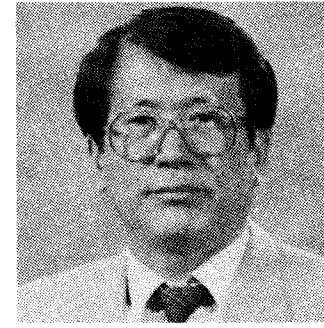
그렇다면 대학기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학신문의 위기란 무엇이 을 의미하고 있으며 학교당국 및 교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대학신문에 위기를 안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대학신문에 위기를 안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대학신문에 위기를 안고 있는 것일까?

올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대학생, 특히 대학기자들이 보고 있는 대학신문의 위기란 무엇인가? 보다 대학신문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학생이므로 그들 생각대로 대학신문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당국에서는

기계 제되어 왔던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편집자율권이란 편집계획에서부터 기사작성과 검토등 신문제작의 전과정을 학생기자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학생들이 대학신문의 가장 중요한 주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전통은 벗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대학신문의 주체는 학생뿐이 아닌 교수, 학교당국(재단, 동문) 등이 분명 모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학교당국 및 교수역시 신문제작(편집)에 참여해야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대학신문발행인 및 법적책임자



장 일 순 교수
<사회대·사회학>

식적인 이유를 떠나 특히, 교수들의 대학신문 편집참여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편집권' 학생·교수의 참여로 질적 향상 도모해야 '사회신문' 복사판 아닌 학술적 내용 필요

여러 기관으로부터 직접내지는 간접적으로 간담까지 침해를 최근에 와서 많이 받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물론 편집자율권에 대한 학생기자들의 요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것으로 오래전부터 끈질

는 총장이며 대학신문사가 대학의 편제상 대학의 한 부속기관이며 신문자체가 학생들의 전용물이 아니라라는 것들을 들어 학교측에서는 학교당국내지는 교수의 대학신문 편집참여에 대한 정당성을 들고 있지만 이와 같은 법적내지는 형

국가와 사회에 비전을 제시하고 그 새로운 철학을 제시함으로써 그 구성원들이 올바른 사고와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대학신문은 온 정열을 쏟아 기여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신문에 담고 있는 주간교수 및 학생

기자들 비롯한 여러 소속구성원들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보며, 그렇기 때문에 대학신문은 일반신문과 크게 다른 것이다.

대학신문은 결코 특정한 정치 집단이나 이데올로기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며 다양하고도 보편적인 지식과 이념들을 사회에 전파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갖고 있는 대학신문의 편집 및 제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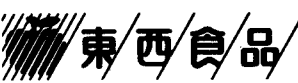
학생들만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주간교수 이외에 여러 자문교수님들을 모신 가운데 다양한 사상과 이론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신문을 만들어 나가야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편집자율권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긴다고 보는 대학신문의 위기는 잘 납득이 가질 않는다. 그러나 대학신문의 위기는 오늘날 오히려 대학신문의 질과 내용

에 있어서 대학인을 비롯한 많은 독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곧 학교당국 및 교수내지는 일부 학생들이 보고 있는 대학신문의 위기와 관련되는 것이라 할수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신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대학인들만이 다룰수있는 새롭고 신선하고 창조적이고 개방적이고 아카데미적인 것들이 별로 눈에 띄지않으며 대학인들만이 누릴수 있는 낭만적인것도 별로 찾을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일반 사회신문의 복사판과 다를없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지나친 투쟁과 민중의 논리에 의해서 많은 면을 채우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대학신문이 일반신문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면서 일반신문과 경쟁을 한다면 결코 경쟁이 될수가 없다. 대학신문은 일반신문이 다룰수 없는 새롭고 창조적이고 아카데미적인 것들을 다룸으로써만이 대학신문으로서의 가치를 인

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대학인은 민중권에 설 수 있고 민중을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민중 그자체가 필수는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대학신문이 처해있는 위기의 단면들이다. 이와같은 위기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인들이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물론 이제껏 해결책으로서 보수와 대우 및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학생기자들의 질을높인다면 학생 및 교수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잘 운영함으로써 대학신문의 질 자체를 높이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선 총체적인 방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신문이 대학신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모든 다양한 이론과 사상이 다양한 대학인들의 글로서 전달되고 표현됨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끌수 있어야 하겠다. 이를 통해서만이 대학신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라 생각된다.



캔커피는 역시 맥스웰!

이루고 싶은게 있다./마시고 싶은게 있다./정통캔커피—맥스웰

대우익스포 '93 공식 캔커피

정상의 이 순간 캔커피

맥스웰

Maxwell 맥스웰 커피

Maxwell 맥스웰 카페오레

Maxwell 맥스웰 블랙티지

풍부한 맛

부드러운 맛

진하고 깨끗한 맛

신제품

동서식품